

지천명(知天命)



제40대(2020년) 회장 **홍순광**

(사)한국산업미생물학회로 출발했던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논어 위정편(爲政篇)에는 나이에 관한 설명에서 '五十而知天命'이라 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학회도 천명을 아는 나이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인생에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무르익어 남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六十而耳順'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2020년도 제40대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회장 취임 당시에 많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에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은 짧은 시간에 우리 사회의 기존 시스템을 모두 정지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 사회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학회는 2020년에 계획했던 학술대회 일정을 소화해 내며, 변함없이 풍성한 학술 및 인적 교류 활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2020년 1월, 강원도 용평에서 개최한 제8회 동계 심포지엄(13일~15일)과 2월 경주에서 개최된 영남지부 총회 및 학술대회(7일~8일)가 2020년에 대면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였습니다. 이후, KMB2020 정기학술대회는 대면개최가 불가능해져서 두 번이나 개최 연기(6월, 8월)를 해야 했지만, 결국 Virtual e-conference로 9월(23일~25일)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COVID-19 팬데믹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타 행사들과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8월 예정이었던 호남·제주지부 학술대회는 결국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은 우리 학회가 “한국생명공학연합회”와 “한국미생물학회연합회”의 주관학회를 맡은 바쁜 한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5회 한국생명공학연합회 심포지엄을 Virtual e-conference로 9월 23일부터 25일에 KMB2020 정기학술대회와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미생물학회연합회는 2020년 International Union of Microbiological Societies 국제학술대회 (IUMS2020)를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예정했던 9월 일정을 연기하고, 11월(16일~20일)에 Virtual Congresses로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과 결과로 우리 학회는 과총

에서 주관하는 “2020년 학술활동 우수학회 선정” 사업에 우수학회로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처음 도입한 e-conference 시스템이 서툴기도 하고 많은 아쉬움도 남겼지만, 우리 학회에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큰 사랑과 관심으로,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는 COVID-19 팬데믹의 위협을 잘 극복하였고, 아울러 많은 학술 및 산·학·연 교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의 자부심이고 저력이라고 생각하며, 늘 회원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학술 활동 이외에, 2020년에는 우리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국문 및 영문학술지 투고시스템의 메인 카테고리를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고 로고를 변경하였으며 홈페이지를 새 단장 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공익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회의 각종 기금을 정리하고, 기금관리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학회 살림을 이끌어 주신 이충환 간사장과 32분의 간사 선생님들, 학술지 개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이규호 영문학술지 편집위원장, 이동건 국문학술지 편집위원장, 양 학술지의 편집간사님들, 기금관리규정 개정애 애쓰신 이정기 자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학회 사무국의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IUMS2020 유치 및 개최에 애써주신 이상기 조직위원장님, 김인섭 총무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않게 닥쳐온 COVID-19 팬데믹은 미생물·생명공학 분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순식간에 정지시킨 COVID-19의 위협도 결국은 인간이 초래한 비극임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구생명지수(LPI, Living planet Index)를 보면 지구환경의 악화로 지난 반세기 동안 3분의 2에 달하는 야생 생물종 개체군의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인해 미생물은 가장 개체수가 많은 사람을 호스트로 선택해야 하는 운명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빠른 주기로 다가올 미생물의 공격을 멈추게 하려면, 이제는 미생물에게도 살아갈 길을 터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늦기 전에, 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모든 생명체가 지구를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존정책의 실행을 위해, 우리도 역할을 갖고 전념해야 할 때가 아닐지, 知天命을 거쳐 耳順을 맞이할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에 화두를 던져 봅니다.